



효자2동 지사협 위원들, 사랑의 밀반찬 나눔 실천

완산구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효자2동 협의체 특화사업인 '사랑 애 밀반찬 나눔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 20세대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사랑 애 밀반찬 나눔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며 어르신들에 인부과 건강을 챙기는 효자2동 특화사업이다.

최현오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밀반찬 나눔 사업 이외 안심 요구르트 배달사업, 명절 이웃돕기, 김장김치 나눔 등 효자2동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나눔을 펼치고 있다. /염은경 기자



정읍시, 소외계층 이웃 위한 성금 기탁 이어져

정읍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연국 산하의 식품업체 '불타는 안창살' 정태일 대표는 7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시가동(시가지 9)에 소재한 '불타는 안창살'은 숯불구이 전문 음식점이다. 전국에 총 18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품질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같은 날 칠보면 수곡초등학교(교장 김선권) 6학년 학생들도 정읍시에 141만원을 전달했다. 학생들이 기부한 성금은 직접 농사지를 쟁과 창업농어리 장터 운영을 통해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정은경 기자



덕진소방서, 모래내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덕진구 대표 전통시장 '모래내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모래내 전통시장 화재 대응 훈련'을 7일 실시했다. 이날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해 역량을 결집했다. 전주덕진소방서의 방호구조과, 현장대응단, 급급119안전센터, 아전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 40명의 인원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35명, 모래내 전통시장 자체소방대 8명이 참여해 화재 진압 및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소방의 시장 화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길 터주기 훈련으로 시작했다. 소방 차량으로 직접 시장 내부를 통과하며 시장 내 상인들에게 소방 출동로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각종 병행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조아록 기자

풀무원 익산공장, 남원사회복지관에 김치 기부

(주)풀무원 익산공장에서는 7일 남원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에 포장김치(1kg) 270봉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초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내 46개 사회복지관 령기관과 1,521가구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풀무원 익산공장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후원받은 김치는 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기부 나눔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선물을 베풀어주셔서 소의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름다운 동행! 2023 새로운 출발!'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제14대 조향순 신임회장 취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제14대 회장이 신임 조향순 회장이 취임했다. 7일 14대 조향순 회장 취임은 13대 김승곤 전임 회장의 뒤를 이은 취임이다. 조향순 신임 회장은 풍부한 경험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인사로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향순 신임 회장은 풍부한 경험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인사로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향순 신임 회장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 협의회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 소속하며 전주소년원(송천동 소재)내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야 하며 장관 위촉 전 회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소년원장 및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준회원(자원봉사, 멘토활동)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연합회의 목적은 '학생 검정고시교육, 심성훈련, 취업지도, 신앙생활, 상담 및 특별활동을 통한 정서지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교정 효과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으로 지도·육성 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 발전과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 교육협의회 지원(교육, 장학지도, 멘토활동, 자격증, 특별활동사업, 종교협의회 지원(집회, 신앙상담)사업, 어머니협의회 지원(생일잔치, 사제체육대회)사업, 사회적복지위원회 지원(진로지도, 취업추진, 자립생활관 후원)사업, 위문 친목활동(단체연수, 애경지)지원 사업이 운영된다.

여기에 소년원과 협의회 발전에 필요한 목적사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편성 봉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두고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제14대 회장 취임과 함께 2월 월례회의까지도 진행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전주승천중·고등학교)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월례회의는 성원보고 조향순 회장, 공로장 수여, 임원소개, 2023 사업내용 및 사업보고, 지난달 재무보고(재무국장 노수선) 순으로 김동우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 됐다.

이시간을 통해 법무부 장관 표창장(3명), 기관장 감사장(12명), 소년보호위원 표창장(6명)이 수상의 영광

을 거머쥔다. 내빈소개에선 장재원 원장 정은 교무과장 김수영 인권보호 팀장 조향순 전주소년보호협의회 14대 회장, 황동현 교문 등 총 18명이 소개됐으며, 특히 신대철 교문의 특별 축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어 지난 제10~11대 회장을 역임한 박순정 교문이 "아름다운 우리 얼굴처럼 모든 아름다움을 학생들에게 보내주자"며 신임 회장에게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띄웠다.

'아름다운 동행! 2023 새로운 출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치뤄진 취임식자리에 참석한 50여 명 전원의 큰 환호속 갈채를 받은 14대 조향순 회장은 전 서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 서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감사,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 전라매일 문화이사, 이중발전협의회 이사, 효자2동주민자치위원, 생활안전협의회(효자지구대) 등에서 활동했다.

조 회장은 현재 은누리기획 대표 공간과너저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그리는꿈 이사, 한국이벤트협회 전북지회 감사,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전주지방검찰청 청소년교육분과위원, 한국문화예술협회 전주지부장 국제로라리3670 지구 전주리더스RC, 한국 CBMC 전주지회 전라북도경제인협회 이사로서 발걸음마다 존재감 넘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신임 조향순 회장은 "아름다운 동행! 2023 새로운 출발! 속에 모두가 '동행'의 길잡이로 함께 응원하고 '출발'이란 희망속에 학생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 하나로 시작해 모두라는 원을 그려듯 앞으로 임원 및 관계자들 모두 하나에서 시작하는 점을 직시하고 모든 집중을 학생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교정시설 현장 방문 행정 실시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은 7일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 방문 행정을 가졌다. 이번 현장행정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도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당부와 소방안전관리 실태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행정에는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박경선 전주교도소장, 교도소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도소 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청취한 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꼼꼼히 살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정시설 소방·피난·방화시설 소방안전관리 실태점검, 화재 발생 시 초기·신속 대응체계 강조, 다수 인명 밀집 대비 자체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지도, 기타 안전관리 및 개선 필요사항 의견 청취 등이다. /김영태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굿씨드' 찾집 수익금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는 지부 소속의 대학생자원봉사 동아리 '굿씨드'가 지난 22년에 진행한 나눔 찾집 캠페인 수익금 약 128만 원을 7일 전달했다. 나눔 찾집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 카페와 협업체 지역주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음료 판매 및 다양한 부스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나눔 찾집 캠페인은, 전주시 효자2동 소재 메가MCC 커피 전주대점 에서 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 굿씨드 동아리원 31명과 함께 진행했다. 캠페인은 음료 판매뿐만 아니라 소원팔찌, 무드등 만들기 와 같은 체험부스 운영과 동아리 자체 제작 컷츠 판매부스를 운영한 메가MCC커피 전주대점은 수익금의 일부를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를 통해 기부했다. 총 200여 명의 전주 시민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의 수익금은 전액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아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은 "굿네이버스 대학생자원봉사동아리 굿씨드와 메가MCC커피 전주대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번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나눔실천 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고향사랑기부 동참합니다"

500만원 기부금 무주군에 기탁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는 7일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무주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금된 기부금은 무주가 고향이거나 농협무주군지부에 근무했던 임직원, 현재 재직 임직원과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하여 마련했다. 권오정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전달장구 운영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이동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이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비 절감과 생애주기별 아동 발달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 장난감도서관'은 놀이 활동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장애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과 도서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강병은 관장은 "장애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과 정서 함양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많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장난감도서관은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지난 14년 개관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이용도 모집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남원시에 이웃사랑 꾸러미 100상자 전달

전북은행은 7일 남원시청을 방문해 300만 원 상당의 'JB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00상자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한 선물꾸러미에는 라면, 김, 국수, 케네, 치약, 물티슈, 칫솔 등 10종 생활용품이 담겨 있으며, 전북은행 임직원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직접 포장 봉사에도 참여하여 정성을 다했다. 기탁된 선물꾸러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희망의 선물을 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개인·단체 장관 표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지역사회 응급 및 재난 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 및 단체로 행안부장관과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경건시를 안았다. 7일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가 전라북도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전문소생술 확대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했고, 구급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유공표창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하 DMAT)은 전라북도 지역 내 재난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 재난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전북대병원 DMAT의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라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전북대병원 DMAT은 평소에는 전북대병원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지역 내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팀 유재철 교수, 2팀 김소은 교수를 팀장으로서 전북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 구성됐으며,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장과 보건소장 및 119 구급대원, 신속대응반과 함께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재난의학적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DMAT에 소속된 김소은 교수, 강종식 응급구조사, 김다희 간호사, 행정요원 김성원은 전라북도청, 남원시 보건소, 119 소방과 함께 팀을 이뤄 출진한 제 16회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DMAT으로서 재난 대응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을 발휘해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상 수상도 했다. /김영태 기자